

전시준비도 그럭저럭 끝이 보인다.  
돌이켜 보면 40번 가까이  
크고 작은 개인전을 치러내는 동안  
나의 세계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실험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다.  
이번 전시도 마찬가지다.  
죽 꿈듯 하는 변덕과 호기심,  
가보지 않은 길로 발을 내딛고 싶어 하는  
모험심 덕에 몸은 늘 고달프다.

간혹, 겁도 없이 너무 쉽게 발을 내딛은 죄로  
대가를 혹독히 치르기도 한다.  
이번도 그런 셈이다.  
지난 개인전 때도 입체만으로 전시했었다.  
준비기간 동안 낯선 질료와 싸우느라  
고생을 바가지로 했었는데  
그럴수록 성취감은 배가되니  
그 맛에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디밀어 놓고 보는 것이다.

아무튼 또 한 번 겁 없이  
발을 디밀었고 힘들이며 일 년 가까이  
바깥세상과는 벽을 쌓다시피  
작업실에 박혀서 지냈다.  
그래도 세상과 동떨어져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늘 연결되어있다고 생각했다.  
내 관심사가 세상사 속에 있고  
내 예술의 뿌리가 그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몸은 비록 떨어져있으나  
나의 속수는 악육강식, 적자생존의 빌딩 숲,  
문명의 도시 내온 불빛아래  
깊숙하고 음습한 곳을 향해있다.  
어찌 보면 한 발짝 떨어진  
이곳에 있어서 그 속이  
더 잘 들여다보이는지도 모를 일이다.

세상의 진통은 나의 진통이고  
나의 분노와 고뇌는  
동시대의 분노이고 고뇌이다.  
소외된 자들의 슬픔과 비애는  
나의 슬픔과 비애가 되고  
나의 호흡은 동시대의 호흡이며  
나의 시간은 동시대의  
세상 돌아가는 시간인 것이다.

이번 개인전 주제는  
그러한 동시대의 진통과 함께하는  
화가의 삶 속에서 찾아보았다.  
그 이유는 화가들이아말로  
한 시대를 깨어있는 시대정신과  
오기 하나로 각개전투 하듯  
힘겨운 삶을 지탱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화가들이  
궁핍과 불안한 미래를  
천형처럼 등쪽에 짊어지고서  
자부심 하나로 돌산을 기어오른다.  
영광과 보상을 기약도 없는  
시간과 운에 내 맡긴 채!

그 중 몇몇은 시간과 운 때가 맞아  
빛을 보기도 하지만  
대다수 화가들이 그렇지 못하다.  
세상사와 똑같다. 다른 게 있다면  
정신성과 금전이 결코 서로를 껴안거나  
동침해서 안 되는 적대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갈등하고 고뇌해야 하는 이율배반이라고나 할까.

이제 머잖은 시간에 작품들은 전시장으로 옮겨질 것이고  
나는, 잠시 아작 난 어깨 치료도 할 겸해서  
머칠만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폭 쉬어볼 생각이다.  
지금은 마지막 남은 한 작품에 매달려 기력을 쏟고 있다.

Exhibition preparations are now approaching the wrap-up phase.  
Upon reflection, I realize that I invested a great deal of time  
in experimenting with ways to effectively convey my world  
throughout the process of hosting nearly 40 exhibitions, small and large.  
The same applies to this exhibition.

My body is always worn down,  
thanks to my wild curiosities and frivolities,  
and the unrelenting attraction to adventures,  
wanting to set foot on untrod paths.

At times, such fearless ventures  
Come at a steep price.  
This would also be the case with this exhibition.  
My last solo exhibition also solely consisted of three-dimensional works.  
I had a hard time  
Struggling with unfamiliar materials,  
But I guess I push on nonetheless  
Because the harder the task, the greater the sense of accomplishment.  
I just do it.

Anyway, once again,  
I chose adventure, and  
Ended up being cooped up in the studio  
For nearly a year, walled off  
From the world.  
But it never felt as if I was set apart  
From the world.  
I always felt connected.  
My interest lies in worldly matters,  
And the roots of my art are firmly grounded in the world.  
So, even when my body is set apart,  
My tentacles are pointed toward  
The deep, dark and damp places  
Within the forest of buildings where only the strongest survive,  
Preying on the weak.  
Perhaps, I gain a better field of vision  
As I look into this depth,  
Standing a step apart, right here.

The world's pain is my pain,  
And my wrath and angst  
Are the wrath and angst of our contemporary world.  
The sorrow and grief of the alienated  
Become my own sorrow and grief,  
My breaths are the respirations of contemporaneity,  
And my time is the present-progressive temporality  
Of the world.

As such, I sought to locate the theme  
Of this solo exhibition in the  
Lives of the artist, as it accompanies  
The pains of our own time.  
This is because I believe that artists are the ones  
Who sustain the burden of life, fighting individually,  
With an awareness of the present and their will to persevere.  
Most artists climb the rocky mountains,  
Sustained only by their self-esteem,  
Weighed down by poverty and anxieties of the uncertain future.  
Seeking for honor and compensation  
Without any guarantee other than time and fortune!

A few are lucky enough to be favored by the gods of time and fortune  
And earn the spotlight they so desire,  
But most are not as fortunate.  
This is how the world works. The only difference  
Lies in the irony whereby we struggle with temptation,  
Despite our belief that the higher pursuits of the mind and spirit  
Should never condone or collude with monetary values –  
This is an entanglement of conflict and resistance.

Soon my works would be transported to the exhibition space,  
And I, will enter a period of full repose, if only for a few days,  
Perhaps to nurse my tired and injured shoulders.  
At the moment, I am fully immersing myself  
In the last piece.